



'가야금 산조'를 창시하여 산조의 창시자가 된 악성(樂聖) 김창조(金唱祖)선생은 영암읍 회문리 태생으로, 북한에서도 우륵 이후 가장 위대한 민족음악가로 추앙받고 있다.

북한의 가야금 교본(1958년 9월 11일 발간)에 보면 '그는 조선 음악 사상에 특수한 위치를 차지한다. 그는 대연주가이며 동시에 탁월한 작곡가였다. 특히 그가 작곡한 [가야금 산조]는 우리의 인민 음악 분야에서 불멸의 공적으로 인정되었으며, 산조는 비단 가야금에만 그치지 않고 각 기악곡 장르 형식상에 다대한 공헌을 하였다.' 라고 소개되어 있다.

김창조 외에도 영암은 김병호, 한성기, 김죽파 등 가야금의 명인들이 태어난 곳으로 한국전통음악의 성지로 새롭게 등장하고 있다. 김창조 선생의 위대한 업적을 기리며, 우리 민족의 전통음악인 산조의 역사성과 예술성을 조명하는 '산조 축제와 학술회의'가 매년 영암과 서울에서 열리고 있다.

